

The Perspective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大學圖書館의 새해 展望

金 南 碩

(啓明大 圖書館長)

I. 序 論

展望이란 대체로 두 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未來를 豫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豫診하는 것이다.

協會에서 要請한 大學圖書館의 展望이 위 두 가지 중 어디에 意味를 두고 있는지는 明確치 않으나 未來를 豫測한다는 것은 실상 상당히 어려운 課題가 아닌가 싶다. 또 이러한 未來豫測의 인 畧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部分도 상당히 많을것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筆者는 本稿에서 우리 大學圖書館界가 今年 한 해 동안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하나의 바램을 나름대로 적고자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圖書館界는 館種을 莫論하고 IFLA大會라는 國際의 行事로 因하여 무척이나 들뜬 雲 團氣속에서 보냈다. 이제 그 뒤 수습도 어느정도 마무리 났으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大學圖書館界가 걸어나가야 할 새로운 方向을 摸索해야만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大學圖書館의 展望을 內的인 要素 즉, 圖書館이란 構造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諸般 活動에 있어서의 새로운 方向과, 外的인 要素 즉, 圖書館 內部에 限定되지 않은 諸般 活動과 圖書館 存在理由를 明確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자세등 두 가지 側面에서 우리 大學圖書館界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山積한 問題點 중에서 이내 論議되어 歸定化된 것을 避하고 奉仕의 側面에서 몇가지 論述해 보고자 한다.

II. 內的인 面

解放以後 지금까지 大學圖書館은 別로 認定받지 못하는 가운데 從事하는 專門人들의 犧牲的인 使命感에 의해서 發展되어 왔거나 아니면 大部分 形式上的 圖書館으로서 維持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1973年의 實驗大學, 1975年의 卒業論文制의 試行 등은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우리의 勞苦를 어느 정도 認定받게 하였으며 大學圖書館의 有用성에 대해

再評價를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大學圖書館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考慮하게 되었으며 文教部 實驗大學의 中心施設로 學論되고 있을뿐 아니라 實驗大學 報告書에도 반드시 이의 發展的인 結果를 報告하도록 하여 行政當局의 實際的인 認識度を 높이게 하였다.

圖書館의 主된 發展은 圖書館 自體의 成熟에도 있지만 보다 重要的인 것은 圖書館을 中心한 주위의 與件造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記述한 여러가지 與件造成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重要的인 時期이며 圖書館을 새롭게 發展시키기 위한 좋은 機會가 될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주어진 外的 條件造成과 步調를 맞추어 自身の 成長을 위한 圖書館의 充實化는 바로 우리 大學圖書館들의 새로운 任務가 될 것이다.

그러나 與件造成에 呼應하기에는 圖書館 자체의 問題點들이 너무나 山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圖書館 發展이 一時的인 全力이나 人力만으로는 解決될 수 없는 本質的인 중요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現實 打開을 위한 方便으로 다음 두 가지 面에서 展望을 생각해 보았다.

A. 指定圖書 制度의 強化

實驗大學을 實施하고 있는 大學들에서는 圖書館의 資料貧弱으로 因해 그 目標遂行에 있어 重要的인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明確하다 하겠다. 이와같은 問題解決은 소위 課題圖書室, 開架圖書室, 教材室, 指定圖書室 등을 設置함으로써 어느정도 効率的인 運用이 可能해 질 것이다. 한편 이의 活用을 위해 當局의 細心한 주의도 要請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圖書館이 이의 實際的인 活用을 위해 몇가지 問題點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곳에서는 名目上的 資料別置로 인해 資料活用に 오히려 차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問題는 아직도 圖書室 자체보다 그 活用이나 運營에 대한 認識 혹은 知識이 적은 圖書館人 자체도 문제이지만 學生이나 이를 運用시키는 教授들의 背他的인 認識에도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指定圖書室 運用의 本來的 目的은 多數利用者에게 적은 資料를 効果的으로 循環活用 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資料의 不足을 制度的으로 補完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運營을 위한 細心한 計劃과 活用者인 學生, 教授, 司書의 三位一體의인 協력이 있어야 한다. 指定圖書의 圖滑한 活用을 위한 몇가지 方案을 적어보면

(1) 教授들의 認識과 積極的인 協力を 들 수 있다. 指定圖書室의 運營은 바로 教授의 要求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指定圖書室에 대한 教授의 認識不足은 때때로 制度的인 協力보다 不滿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먼저 指定圖書室에 대해 充分한 認識을 시키고 다음 活用을 위한 方案을 協議해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해서 圖書館은 繼續 接觸을 가지고 選定된 指定圖書의 活用을 수시로 教授와 連絡하여 指定圖書의 運用에 대한 關心을 誘發시켜야 한다.

(2) 指定圖書의 選定과 活用問題

지정도서 制度를 처음 실시할 때 利用者들의 不平을 除去하는 것도 圖書館이 감당해야 할 하나의 문제이다. 이러한 不平은 貸出의 方法的인 問題보다 指定資料의 選定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問題의 야기는 과제도서란 名目으로 特別히 指定할만한 價値가 없는 자료를 固定시켜 이를 死藏시키는데 있다고 하겠고 또한 融通性 없는 運營에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資料의 迅速한 變化를 試圖해서 課題의 期日과 一致시켜 學生들로 하여금 指定圖書室에서 科題와 일치되는 信賴性이나 기대를 갖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活用に 따라 資料의 使用前과 使用後에 수시로 書庫에 復歸되고 새로운 자료로 代置되어야 한다.

(3) 圖書館 職員의 奉仕精神

指定圖書室은 圖書館 資料中에서 가장 動的인 部門으로서 그 機能을 遂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指定資料의 充分한 確保도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教授資料는 주로 教授의 자기만의 資料를 中心한 것이었으나 指定圖書室에서는 이러한 資料를 學生들이 능히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있는 資料를 우선적으로 購入해야 하며(購入은 複卷을 避해야 함) 國內에서 補充되지 않는 자료로 複寫室을 最大限 活用해야 한다. 그래서 教授의 유일한 資料는 빌려서 必要部分을 複寫備置한다던가 많은 學生이 이용할 수 있도록 論文의 重複카피가 필요시 된다.

(4) 排列問題

이와 같은 資料는 分類番號順이나 教授別, 分野別로 배열할 수 있겠으나 그 量에 따라 適切한 調整이 필요하다. 全校的인 指定圖書의 活용으로 그 量이 400이나 500권을 넘을 때에는 教授別 배열보다 主題別 배열이

무난할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本然의 指定圖書制度 運營은 分類順보다는 分野別로 또한 教授別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렇게 하므로서 講義의 指定圖書가 直結되게 한다. 열람방법은 可及的 開架式이 무난하나 條件에 따라 半開架式이나 閉架式도 생각할 수 있겠다.

指定圖書室 責任者는 指定圖書에 對한 全體的인 把握은 勿論 지정도서가 運用되는 경과를 알아서 教授의 授業에 앞서 課題의 進行事項을 協議하고 과제의 量, 時間중을 調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充分한 資料의 파악을 통해서 學生이 스스로 찾는것 보다 職員에 의해서 그 자료의 有無가 즉시 確認될 수 있도록, 또한 과제의 범위와 기간이 確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指定圖書와 教授, 學生, 司書가 밀접하게 接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圖書館에서 모든 과제의 解決, 授業進行의 參考가 可能하다는 認識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圖書館職員은 事務職이 아니라 教授職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도 중요한 일이다.

B. 書誌業務의 強化

1975年 大學 卒業論文 制度는 圖書館을 자극시킨 또 하나의 要因이라 할 수 있다. 大學圖書館이 가진 使命의 하나가 研究資料의 提供이라는 점에서 볼때 卒業論文 制度의 試行은 圖書館으로 하여금 이러한 使命에 대해 再評價를 要求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研究資料 機關이라는 말을 해 왔으나 막상 연구자료의 接近이 外部에 의해서 닦쳐온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對處하는 姿勢의 確立과 새로운 奉仕類型의 開發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筆者가 在職中인 啓明大學 圖書館의 경우를 보면 每日 平均 170餘件의 參考質疑와 400餘 項目의 資料要請이 殺倒하고 있다. 이들 자료의 大部分은 도서자료도 있겠지만 90%이상인 論文資料라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大學圖書館의 資料構成은 論文 보다는 單行本(기준령 관계로)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 관심의 대상은 單行本 보다는 論文이라는 점에서 藏書構成의 再評價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구되는 자료의 確保는 지금까지 保管에 의무를 두고 무질서 하게 管理되어 왔으나 論文資料의 活用을 爲해 保存資料의 정리가 시급하고 이를 이용자와 連結될 수 있도록 索引誌의 確保와 自家索引의 作成 및 維持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수서의 政策的인 문제는 比較的 學術性이 적은 週刊誌, 月刊誌 보다는 적어도 季刊誌나 論文集에 注力해야 할 것이고, 또 이용대상이 多數의 學生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國內資料의 確保

및 書誌業務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論文資料를 통한 도서관의 奉仕類型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자료제공 보다는 보다 價値있는 것이 될 것이고 새로워져야만 하고 범람하는 정보자료의 秩序 있는 整理와 提供은 또 다른 發展된 情報資料의 產出과 自己成長은 勿論, 社會成長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爲해서 圖書館의 關心은 繼續해야 할 것이고 學生이나 敎授의 分野에 맞는 特徵있는 資料의 選定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밀하게 計劃된 수서정책, 每日의 文獻情報 入手등은 바로 論文資料의 提供은 勿論情報資料提供에 커다란 里程表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서”라는 인식과 行政家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찾는 자들에 대한 統計的인 P.R.을 通해서 圖書館에 대한 認識度를 높이므로써 우리만이 아는 學內的 情報 및 研究센터가 아니라 敎授, 學生이 같이 共感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Ⅲ. 外的인 面

大學의 位置한 社會的인 與件과 大學이 가진 使命遂行을 고려해 볼 때, 단지 內的인 充實만으로 그의 使命을 擔當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大學은 社會中의 大學이요, 社會中의 社會라는 점에서 새로운 圖書館의 活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外的인 側面에서의 展望은 大學圖書館의 相互協力과 地域社會에 대한 도서관의 開放과 奉仕, 그리고 地域內 도서관간에 協力시스템을 形成하므로써 地域圖書館의 情報源이 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観点에서 고려될 수 있다.

A. 大學間의 相互協力 問題

서울의 西江大學, 延世大學, 梨花女大 등 몇개의 大學圖書館은 이미 그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大學圖書館이 我執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開放을 꺼려하고 있다.

前章에서 말한 資料源으로서의 任務遂行은 單一圖書館의 자료만으로 이를 擔當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보다 발전된 先進國에서까지 이미 協力的 問題는 絶실한 것으로 活動이 試圖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아직도 黎明期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다 絶실한 問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지역별로 絶실한 圖書館간의 資料協力은 利用者의 정보제공에 기여함은 물론, 限定된 예산의 浪費를 막을 수 있으며 수서에서부터 열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機關이 여러개의 協力圖書館 奉仕를 받게되므로 자료의 活用은 말할것도 없고 人的, 經濟的, 계 問題의 해결이 가능해지게 되며 도서관을

이용자에게 밀접하게 接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B. 對 地域社會 協力的 試圖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位置는 施設, 資料, 人力面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하며 그래도 所屬한 社會의 정보자료의 中心이 되고 있는 事實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全國3,446개의 圖書館中에 大學圖書館은 不過 164로 시설의 숙적인 면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이 갖고 있는 자료적인 면이나 예산, 人적 資源은 다른 관중에 追從을 不許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시설들에 대한 全國的인 分布는 많은것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기는 하나 重要都市의 요소요소에 散在하고 있어 地域社會의 發展을 위한 정보제공자로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與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大學圖書館은 限定된 대상인 學內的 學生이나 敎職員을 위한 시설로만 되어 있었다.

그러나 大學敎育 目標에서 밝힌것과 같이 연구와, 敎수, 社會봉사라는 그 基本理念을 생각한다면 비록 學內的 情報機關이기는 해도 大學이 擔當해야 할 社會奉仕는 도서관을 社會에로 開放하므로써 指導者 養成이란 命題의 임무수행과 이를 지도자의 자기 발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 役割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産業重進國으로서의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韓國的인 理代의 與件은 곳곳에 工業團地를 形成하므로써 이를 高度의 기술을 요하는 産業體로 變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자료의 요구를 絶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時代의 要求에 副應하기 爲하여 발전한 것이 KORSTIC이다. 그러나 KORSTIC의 活用과 더불어 部分的이나 絶실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協력이 있어야 한다. 國家産業의 발전이 大學의 발전이라는 것은 社會속의 大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내것”이라는 지나친 개념의 자료운용은 社會發展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國家 經濟에 미치는 惡影響도 지대할 것이다.

經濟的인 與件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자료의 廣範한 活用이 있어야 하고 産業社會와 大學圖書館과의 連結은 바로 產學協同의 一體感으로 서로를 成長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C. 지역도서관의 정보원問題

前述한바와 같이 地域社會에는 어디서나 圖書館施設이 요망되고 있고, 있는 施設의 大部分도 그 자체가 고립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참신성을 상실한 기관으로 外面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社會發展은 바로 地域住民의 精神資源을 토대로 한 經濟發展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精神資源은 一時的 또는 自動的으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持續的인 勞力으로 가능해지며 世代的 발전을 연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物的資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意味에

서 도서관 시설은 바로 정신자원 개발을 위한 物的資源이라고 본다면, 도서관의 필요성은 社會 各 分野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地域別 도서관망의 형성은 이미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館의 種類나 規模에 무관하게 形成되어야 할 것이며 大學圖書館은 이 System속의 가장 中樞的인 役割을 遂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大學圖書館은 인접한 地域社會의 市民을 위한 시설이면서 소속한 地域에 산재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자료원이 되어야 한다. 간접적으로는 市立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의 情報資源 母體로서 이들의 活動을 위한 支援團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先進國에서 행하고 있는 Total Community Library Service의 一員으로서 公共圖書館을 中心한 諸圖書館의 協力에 지원단체의 기능 감당을 위해 소속해 있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分擔購入 制度의 採擇과 集書의 特性化, 地域別 綜合目錄 施設, 자료의 상호이용등 광범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 結 論

이상 제시된 內的인 측면과 外的인 측면에서의 전망 외에도 우리 大學圖書館界가 解決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을 것이다. 具體的인 예를 들면 專門職 司書의 確保 문제, 藏書의 質的인 改善問題, 圖書館長職의 專門職

交替問題, 專門職 司書의 職制問題, 또는 施設 擴充과 自動化 導入의 可能性 檢討, 도서관 이용지도, 교육의 새로운 차원 모색, 參考業務의 廣域化 및 專門化, 豫算擴充問題등등 너무도 많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制限된 紙面관계로 일일이 論述할 수 없었고 大部分 部分的으로 이 論議된 事項들이기에 생략하였다. II章에서 제시된 內的인面에서의 改善은 大學圖書館으로 하여금 그 소속社會에 대한 信賴를 回復하고 圖書館 本然의 기능을 遂行하기 위한 根本的인 요소들이며 人的 및 物的 資源의 効率的活用을 위한 가장 손쉬운 方案이 될 것이다. 그리고 III章에서 제시된 전망은 지금까지 우리 大學圖書館界가 무시하였거나 혹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分野로서 大學圖書館間의 상호 협력문제는 單一圖書館이 가지는 限界點을 克服하고 各 圖書館이 가진 資源의 효율적 活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地域社會에 大學圖書館을 開放하므로써 最近 學界의 關心의 대상이 되고 있는 產學協同의 理念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 없고 大學圖書館이 地域內 圖書館들의 中心이 되므로써 地域內 圖書館들을 위한 支援團體로서의 役割을 遂行함은 勿論, 地域社會의 社會的 文化的 發展을 위한 基盤을 造成해 주게 될 것이다.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鍾路區 鍾路1街 40 電話 (72) 5131~33